

# 과잉상태 정부양곡 재고 축소 주정·사료용 14만톤 추가처분

농식품부 올 처분 92만톤으로 확대  
과다 재고물량에 관리 부담 높아져  
농가 위해 매입가 17% 수준 판매  
지정된 용도 사용... 모니터링 실시

정부가 축산농가의 높은 사료비 부담을 덜고 정부양곡 관리비용도 줄이는 차원에서 올해 보유분 처분물량을 14만톤 더 늘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과잉상태인 정부양곡 재고를 줄이기 위해 주정용과 사료용으로 각각 7만톤씩 14만톤의 정부양곡을 올해 말까지 특별처분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올해 당초 77만5000톤 규모를 처분할 계획이었는데 총물량이 92만여톤으로 늘어나게 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수확기에 큰 폭의 하락세가 지속되던 산지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수확기 사상 최대 물량

인 77만톤(공공비축미 45만톤, 시장격리 32만톤)을 매입해 쌀값을 안정시켰다. 다만 이에 따른 정부 재고량도 함께 증가해 지난 4월 말 기준 재고량은 170만톤으로 적정 재고(80만톤)를 크게 초과했고 이는 정부양곡을 사료용으로 처음 처분했던 2016년과 유사하다. 과다한 재고물량으로 보관료 등의 관리 부담 역시 높아졌고, 시중 쌀 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변상문 식량정책과장은 "특별처분 물량까지 더해 주정용은 올해 총 22만톤을 판매하고, 축산업계의 요청 등을 고려해 신규로 사료용 7만톤을 처분할 계획"이라며 "판매가격은 관련 단체 등과 협의를 하겠지만 사료용도 국제사료가격의 고공행진으로 힘들어하는 축산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입가보다 낮게 책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판매가는 매입가의 17% 정도선이 될 것으로 업계에서는 추정하고 있다.

변 과장은 "금번 정부양곡 특별처분으로 2023 양곡연도말(10월말) 정부양곡 재고량도 당초 149만톤에서 135만톤으로 14만톤 정도 감소할 것"이라면서, "특별 처분을 통해 ▲정부양곡 보관비용 약 115억원 절감, ▲사료용 및 주정용 수입원료 대체에 따른 외화 618억원 절감(사료 283억, 주정 335억원), ▲2023년 수확기 대비 정부양곡 창고 여석 확보 ▲과잉물량 축소로 쌀값 상승에 일부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주류협회 및 사료 관련 협회 등 유관기관과 세부 사항에 대한 논의를 거쳐 7월부터 본격적으로 정부양곡 특별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유관기관과 합동 모니터링을 통해 특별처분된 쌀이 지정된 용도로만 사용되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차상근 기자 skc8472@metroseoul.co.kr



인천공항가죽 글로벌 봉사단(17기) 단장인 김범호 미래사업본부장이 단원들과 함께 5월 21일 인도네시아 바탐 하라반 바루 초등학교에서 시설개보수 작업을 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 인천국제공항공사, 인니 직항 노선 취항식

아세안 시장 공략 위해 단계적 마케팅  
임직원 26인 글로벌 봉사단 파견도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19일 전략적 진출지역인 인도네시아 바탐 직항 노선 취항을 기념해 취항식 등 연계 마케팅 행사 개최 및 현지 봉사 활동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신규 취항이 이루어진 노선은 인천공항이 지난해 12월 계약을 체결해 작년 7월부터 운영 중인 인도네시아 바탐공항이다. 전세기 형태의 시범사업이지만 다음달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 정부간 항공회담 결과에 따라 운수권이 확보될 경우 정기 노선으로의 취항도 가시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공사는 바탐 전략노선 개발을 위해 단계적인 마케팅을 추진해왔다. 먼저 항공사·현지기관과 노선개발 협력 업무협약 및 상호 지원방안 협의를 통해 파트너십을 구축한 바 있다.

또한 공사는 지난 22일 바탐 현지에서 한국관광공사(KTO) 자카르타 지사와 협력해 현지기관 및 주요 여행업체

관계자 100여명을 초청해 '방한·환승 관광 활성화'를 위한 한국관광 홍보 설명회'도 공동 개최했다.

공사는 최대 성장 지역인 7억명 규모의 아세안(ASEAN)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항공노선 개발 및 공항개발 해외 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중 인도네시아는 인구수 2억8000만명으로 ASEAN내 최대 규모의 국가이자 우수한 재무건전성을 보유하고 있다.

공사가 바탐에서 수행 중인 '항나담 국제공항 운영·개발 사업'은 전체 사업비 6000억원, 예상 누적 매출액 6조 4000억원에 달하는 공사의 역대 최대 규모 해외사업이자 국내 최초의 해외 공항 운영 개발 사업이다.

한편 공사는 이번 인천-바탐 취항과 연계해 공사 임직원 26인으로 구성된 '인천공항가죽 제17기 글로벌 봉사단'을 파견했다. 봉사단은 바탐 현지 초등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보수 및 기자재 지원, 초등학생 대상 교육 봉사 및 문화교류 행사 등을 진행한다.

/허정윤 기자 zelkova@

## “노동개혁 통해 약자 보호, 이중구조 해소”

‘상생임금위원회 토론회’  
6월 중 이중구조 개선방안과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대책 발표



득권만을 강화하고, 투쟁적 노사관계로 회귀해 오히려 진정한 약자보호가 소외되고 만다"는 견해를 냈다.

또 "지난 1년간 마련한 노동개혁의 기틀을 토대로, 6월 중 이중구조(임금격차) 개선방안과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대책 등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이재열 서울대 교수는 "대기업 근로자가 100만 원 받을 때 중소기업 근로자가 받는 임금은 64만 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상생위는 이 같은 격차해소를 위해 오늘 논의를 토대로 6월 발표 예정인 이중구조 개선 대책수립을 지원할 것"이라며 "임금체계 개편 관련

모든 과제를 종합한 상생임금확산 로드맵을 연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는 토론회 발제를 통해 "길게 근속을 타고 올라가는 사람은 적으나 근속 간 임금격차는 높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대규모·정규직으로의 상황이동이 덜 활발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성 박사에 따르면 이중노동시장 완화가 주요 현안이 된 나라들은 주로 유럽 국가들이다. 그는 "(유럽에선)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가 문제라는 진단하에 비정규직 재규제화 등 정책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엔 박지순 고려대 교수, 이정민 서울대 교수, 한석호 전태일재단 사무총장, 황용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이 23일 노동시장 임금격차 해소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정동에서 열린 상생임금위원회 토론회에서 "노동개혁의 최우선 과제는 노동시장 약자를 보호하고 이중구조를 해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중구조란 대기업·중소기업의 임금격차 등을 가리킨다.

이 장관은 "그러나 그 해답이 노동조합법 몇 개 조항 개정은 아니다"라며 "개정안은 조직화된 대규모·소수의 기

## 과기정통부, 벨기에서 韓-EU 전략기술 협력 논의

기술패권 시대 대응할 전략기술 육성  
안보적 신뢰 높은 파트너와 협력 필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23일(화) 벨기에 브뤼셀에서 마크 르메트르(Marc Lemaitre) EU 연구혁신총국장을 만나 한-EU 전략기술 분야 협력 확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22일 윤석열 대통령과 EU 샤를 미셸(Charles Michel) 상임의장 및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집행위원장은 공동성명(Joint Statement)을 통해 파괴적 신기술 등 신기술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선언했다. 이에 대한 신속한 후속조치로서 주영창

혁신본부장과 마크 르메트르 EU 연구혁신총국장의 만남이 성사됐다.

최근 기술패권 시대가 본격화됨에 따라, 기술주권 확립을 위해서는 자국내 자립기반 마련도 중요하지만, 안보적 신뢰도가 높은 파트너와의 견고한 협력체계 구축도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작년 10월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을 통해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EU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확대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이날 주영창 혁신본부장과 마크 르메트르 EU 연구혁신총국장은 기술패권 시대 대응을 위한 전략기술 육성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고, 향후 한-EU간 전략기술 분야 협력을 강화하자는 데에 뜻을 모았다.

Horizon Europe은 2021년부터 2027년 간 955억 유로(약 130조원)를 지원받는 초대규모의 EU 연구혁신 분야 재정지원 프로그램으로, EU 연구혁신총국은 이를 총괄하는 부서이다. 지난해 개최된 제7차 한-EU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계기로 과기정통부는 Horizon Europe 준회원국 가입 의향을 공식 전달했고,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EU 정상 간의 회담을 통해 준회원국 가입 협상에 본격 돌입할 것임을 선언했다.

또 주영창 혁신본부장은 마텐 빌렘스(Maarten Willems) IMEC 부사장과 전략기술로서의 반도체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면서, 우리나라 정부출연 연구소와의 협력을 제안했다.

/채윤정 기자 echo@

## 대구 팔공산 '23호 국립공원' 지정

환경부, 국립공원추서 심의·의결

대구광역시에 인접한 팔공산이 23일 우리나라 23호 국립공원으로 지정됐다.

환경부는 이날 제138차 국립공원위원회를 개최해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980년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지 43년 만에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것이다.

이는 또 이명박 정부에서 무등산국립공원(광주광역시 소재·21호), 박근혜 정부에서 태백산국립공원(강원 태백·22호)이 의결된 이후 7년 만의 일이다.

환경부는 "팔공산을 여타 22개 국립공원과 비교할 경우 야생생물 서식 현황은 8위(지리산이 1위), 자연경관자원은 7위(지리산이 1위), 문화자원은 2위(북한산이 1위) 수준"이라며 "(여러

측면에서) 보전가치가 뛰어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정 이유를 밝혔다.

지난 2021년 5월31일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국립공원 승격을 정부에 건의했고, 환경부는 2년여의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도립공원 대비 0.826km<sup>2</sup> 증가한 126.058km<sup>2</sup>의 면적을 국립공원에 지정하기로 했다.

팔공산국립공원 지정에 대한 지역사회의 찬성 여론 또한 2019년 72%에서 올해 5월 현재 84%로 뛴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무등산·태백산의 사례에 비춰 팔공산 탐방객이 향후 28%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훼손지역 복원과 문화유산지구 정비사업 등을 통한 체계적 관리를 약속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 환경부, 투명페트병 재생원료 수요 확대

식음료 제조사, 재생원료 10% 사용된  
투명페트병 식음료 제품 출시 계획

환경부가 투명페트병 재생원료의 수요 확대를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3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올 상반기 내 투명페트병 재생원료 사용제품 출시'를 선언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참여한 기관·업체는 식품의약품안전처·한국코카콜라·산

수음료·매일유업·한국수자원공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등이다.

특히 식음료 제조업체 네 곳(한국코카콜라·산수음료·매일유업·한국수자원공사)은 상반기 내로 투명페트병 재생원료 사용 비율이 10%인 투명페트병 식음료 제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이후 소비자 반응 및 안전성 등을 검토한 뒤 투명페트병 재생원료의 사용 비율과 적용 품목을 늘릴 예정이다.